

2015.4.19. 주일오후예배 메시지

성경적인 전도캠프의 이해

사도행전 16:11-18

권형우 목사님

드로이에서 바울 팀이 네압볼리로 가고,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팀이다. '우리가'이다. 이 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분명히 마24:14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시겠는가. 때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 어느 팀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는데, 이 시대에 참사랑교회가 그 팀이 될 줄 믿는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적인 전도캠프를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교회, 팀에는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면 되는 것 같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경적인 전도캠프를 이해한 팀이 하나만 나와도,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

1. 진단

성경적 전도캠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왜 주셨느냐 하는 것이다. 말씀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람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병든 사람은 고물상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웃음) 이 진단을 불신자상태 여섯 가지로 할 수 있다.

(1)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는 문제가 근본문제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다. 이 근본문제가 창3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3장 문제라고도 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빠져 있다.

(2) 그래서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다. 엡2:1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악령과 성령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과 귀신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엡 2:2,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다. 제사를 지낸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제사도 마찬가지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라. 죽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매일 지내야지, 1년에 한 번 지내면 어떻게 되나? 굶어죽지. (웃음) 고사를 지내는 것도 생각해 보라. 돼지의 입장에서 자기 몸은 다 삼겹살 해 먹은 놈들이 자기 머리에 절을 하면 복을 주고 싶겠는가? (웃음)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니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신문제다.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고민하고 열려한다. (마11:28) 내려놓을 데가 없으니, 계속 받다가 결국 폭발하게 된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너무 착했는데, 군대 가서 뭘 했는지 총기사고를 일으켰다." 그렇지 않다. 계속 쌓이다가 이게 군대 가서 터진 것이다. 엄마 입장에서, 잔소리 아무리 해도 다 받아주고 대들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실은 생각,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쌓여오고 있었다. 그래서 표시 안 나게 시달리던 사람이 마침내 사회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답이 없으니까 갈수록 재앙시대가 온다.

(4) 이게 육신문제까지 연결된다. (행8:4-8)

(5) 내세문제가 온다. (눅16:19-31)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 굳이 착하게 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이 없으니까. 그러나 양심이 뭐라고 이야기 하나? 죄를 지을 때마다 '벌받는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안다. 본인도 안다.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다." "어디로 가겠냐?" "지옥에 간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애써 안 믿으려고 할 뿐이다. 히9:27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6) 이 문제가 후대문제로까지 온다. (출20:4-5) 3, 4대로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여섯 가지 문제로 진단한다면, 분명한 답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화장품은 뭘 쓰느냐. 이 진단만 안 한다. 그러니 사람을 살려낼 수 없는 것이다. 심방을 갔는데, 다과를 하면서 구역 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예쁜 그릇이 나오니까 이 그릇을 어디서 샀느냐, 얼마냐 하는 것으로 한 시간동안 계속 떠든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다. 복음을 가지고도 이 진단이 안 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지 않는다. 3월에 우리 안양노회에서 바울 팀의 전도현장을 성지순례로 다녀왔다. 내가 바울이었으면 안 갔을 것 같다. (웃음) 너무 오래 걸린다. 성경은 한 구절로 끝나는 곳인데 며칠을 걸려서 고생해서 가야 했다. 바울 때는 어땠겠나. 마가 요한이 왜 전도하다가 돌아갔는지를 알겠더라. 산길이고 너무 춥고 힘든데 걸어가고 당나귀 타고 가고, 왜 갔는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바울이 전도여행 했던 코스를 가면서 결론내렸다. 제정신이 아니다. 24시 아니면 못 했다. 그래서 바울이 엡6:18을 말했다. 기도 안 하고 가면 못 가는 길이다. 차로 갔는데도 몸살 난 사람이 많았다. 그 정도 힘든 길이었다. 성령충만 없이 그 길을 갈 수 없다.

2. 해답

진단하고 나면 답이 보여야 한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해답이 보이게 되어 있다.

(1)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해답, 틀린 해답을 주고 있다. 이것이 종교, 선행, 철학이다. 이 답을 가지고는 절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누구도 못 빠져나온다.

(2)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해답을 줘야 되겠다.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줄 수 있는 팀, 이것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은 쓰신다.

①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 속에서 답을 주셨다. 그게 창3:15이다. 출3:18 희생제물이 다. 사7:14의 말씀이다. 마16:16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섯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언약 속에 있다. 그래서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②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다.

- 1) 그 증거가 고전3:16이다. 여자의 후손을 믿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
- 2) 요14:26-27,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
- 3) 요14:14, 분명히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셨다.
- 4) 히1:14에,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신다.
- 5) 눅10:19에,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까지 주셨다.

6) 행1:3,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다.

7) 행1:8,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축복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전도를 오해한다. “목사님, 저는 받은 복이 없어서 불신자를 만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직장이 없고 돈이 없고 차가 없고 집이 없다고 했다. 맞나 틀리나? 나도 속을 뻔 했다. 그래서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너 직장 얻어 주고 돈 주고 차 사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아니지 않나. 집, 돈, 차, 다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다 가졌는데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눅16장의 부자 아닌가. 그 문제에 답을 줘야 한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 봐라. 병 고쳐준다. 집 사준다. 외제차 생긴다.” 그런 말 제발 하지 마라. 여러분이 100평 아파트 살면, 200평 사는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것이다. 그게 진짜 전도가 아니다.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시달리고 있다.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다.

3. 시간표

우리가 현장에서 진단하고 답을 주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반응을 잘 보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표라고 한다. 바울이 전도했던 현장은 행13장에서 파송되어 19장까지 가는데, 이 시간표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 전도가 되어진 것이었다. 이 시간표를 못 보면 반드시 전도에 실패한다. 진단하고 답을 가진 사람이 시간표를 보려면,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여시는가? 메시지가 준비되는 팀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예비된 사람보다 예비 안 된 사람이 더 많다. 전도가 잘 되나? 솔직해지자. 안 되지 않나? (웃음) 나도 우리교회가 전도가 안 되어서 기도한 것이다. 전도가 안 된 날은 굉장히 놀린다. 별 생각이 다 든다. 현장 나가자 할 때 아는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지만 아무도 없는 데를 가라고 하면 굉장히 떨린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도가 하면 할수록 힘들었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전도 안 할래요. 성경적 전도는 쉽다고 했는데 나는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자꾸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를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새로 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 주시는 게 있었다. 그리고 보니까, 전도가 안 될 때 더 축복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팔복을 보니까, 전도가 안 되고 욕을 먹을수록 상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슬퍼하고 놀렸지 않나. 마10장에서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현장에서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다. 그러니 영접시킨 사람보다 욕 먹고 온 사람이 더 수치맞은 것이니까 더 행복하게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안 그렇다. 성경대로 안 산다는 것이다. 진짜 성경대로 하면, 가면 갈수록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 성경대로 하면 된다. 나는 1997년에 아이들만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다. 아이가 8, 7, 6살이었다. 합숙훈련만 받고 개척을 했다. 월화집회 갈 때마다 엄청 갈등했다. 생활비로 쓸 것인가, 교통비로 쓸 것인가. 밥이야 압력밥솥 싼고 다녔지만, 월화집회를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매주 갈등하고 생명걸고 헌신했다. ‘이것 다 쓰고 없으면 굶는다.’ 이런 마음으로 3년을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결론이, 전도는 진짜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했다. 월화집회 갔다 와서 수목금, 병원전도 세 곳을 갔다. 전도하고 영접하면 ‘목사님, 꼭 갈게요’ 해 놓고 다른 교회 갔다. 그런데 성경적인 전도 눈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영접한 사람은 지금까지 하고

있다. 300명 기도제목이 있는가? 영접시킨 300명의 기도제목이 있는가? 그 기도가 응답된 날에 제자로 만나지게 될 것이다. 사람 이름을 뺄뺄하게 적었다. 필리핀에 전도캠프를 가서 2980명이 영접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영어로 다 적어놓았다. 왜냐, 다음에 만났을 때 그 기도제목을 확인하려고.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롬16장의 일꾼이 나온 것이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했던 것 같다. 어디를 보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 1년에 두 번씩 대만 들어가는데, 대만에서 영접한 사람 명단을 두고 지금도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없어졌다. 연결이 안 된다. 그래도 기도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끝까지 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다음에 만나면, “다음에 만나자. 응답을 확인하자.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친구를 데리고 와라.” 사명 메시지를 줬다. 기도가 영적인 과학임이 확인되고 있다. 계속 하나씩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심 전심 지속하면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 같다. 중간에 포기할 자인지, 끝까지 지속할 자인지. 끝까지 헌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이다.

(1) 복음을 전하면 그 시간에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 행13:48이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다 영접하게 된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2) 두 번째 시간표는 마12:28-29이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했다. 복음 전할 때 퍽박하든지, 반응을 일으켜 발작하는 사람이 있다. 무조건 예수 얘기 하지 말라고 쫓아낸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결박하라고 했다. 그래서 쫓겨나더라도 물어봐야 한다. 뭘 믿는지는 물어봐야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쫓아내면서도 가르쳐준다. “우리 집은 불교 다니니까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나가세요.” 그러면 그 집안의 종교, 제사, 미신, 이단, 점, 이런 부분들을 찾아놓고 기도해야 한다.

(3) 세 번째다. 고후4:4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다 듣는 것 같지만 본인은 안 들리는 것이다.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이 있다. 이런 시간표를 보면, 우리는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답이 다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 입는다. ‘기분 나쁘다. 다시 오나 봐라.’ 그러고 있으면 강한 자가 이 지역을 절대 놓아주지 않게 되어 버린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결박할 신분과 권세가 있다. 그래서 지교회는 뭔가? 류목사님은 지교회는 정체성이라고 했다.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가만 갈수록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표를 알고 어떻게 기도제목을 찾아내느냐, 어떤 기도팀이 나오느냐가 전부 다다. 97년에 개척할 때 교회가 37명이었다. 현장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딱 차서 80명이 되었다. 이번에는 200명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지역을 분석해 보니 지역을 천주교가 잡고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 80%가 천주교 신자였다. 그래서 기도제목을 찾았다. 지역을 잡고 있는 종교 흑암을 꺾어야 한다.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로 세 번째 쓰는 곳이었다. 앞의 두 교회가 다 무너져서 나갔다. 그래서 똑같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밤마다 8시에 모여서 기도했다. 종교 흑암을 꺾었다. 2년 전이다. 300명 내라고 하면 못 내지 않나? 그래서 10명만 내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 그리고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기도했다. 구역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밀에 누가 사는지, 차 한 잔 하면서 이름 적어놓고 지금까지 다 기도하고 있다. 매일 밤에 명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다. 심각한 사람은 자기는 80명 명단 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게 힘들다. (웃음)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명단을 꺾야 한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다.

왜 세 가지 시간표를 보라고 하는가? 기도제목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만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라는 이 팀이, 빌립보, 마케도냐 첫 성에 들어갈 때, 기도처부터 찾아갔다. 바울 팀은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보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다.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하면 이 흑암이 무너지는 것인가를 보았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이 결박되고 떠나가는데, 이 시간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팀이 '우리가' 라는 팀이다. 참사랑교회에 이런 기도팀이 나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문들이 있다. 계속 만남의 축복들이 연결된다. 이 응답을 현장에서 보고 있다.

4. 문

기도하면 뭐가 열리는가?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문이 있다.

(1) 자동문이 있다. 내가 여는 문은 수동문이다. 내가 전도캠프 현장에서 많이 끌려다녔다. 수동문 때문에. "목사님, 이분 만나야 해요." 기도 안 하고 연결만 시켜 주니까 끌려다니면서 고생만 한다. 왜 문이 안 열리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니까. 그러나 자동문은 뭔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다.

(2) 여기는 팀이 가장 중요하다. 팀이 캠프의 열쇠라고 보면 된다.

① 그래서 준비된 일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1) 그래서 구원의 길 쓰는 숙제를 미션 홈에서 계속 하고 있다. 나도 매주 쓴다. 이렇게 했더니, 전에는 나를 불러서 영접시켜 달라고 하던 분이, 이제는 자기가 영접을 시켜서 교회를 데리고 오더라. 일꾼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구원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

2)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 주신다. 그런데 제자를 찾으려면, 구원의 길만으로는 안 된다. 제자가 안 붙는다. 우리는 영접만 시키고 제자 나오기를 바라는데, 제자를 세우려면 제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답, 운명 사주팔자 바꾸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제자를 만나면 제자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어떻게 줘야 하나?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속에 다 있다. 천명, 소명, 사명, 다 들어봤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지 않나? 내가 안 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제자 메시지는 어떻게 줘야 하나?

a.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게 행1:8이다. 이것을 설명해 줘야 한다.

b.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있는 모든 일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행16:31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집, 장가 보낸 이유가 가문복음화다. 재수없이 시집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행18:1-4에, "업이 같으므로." 왜 그 회사, 그 직장에 가나? 돈 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계획을 찾는 것이다. 고민하지 말고 계획을 찾아내라. 성경적인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는 기도하면 되어진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모든 사람을 전도대상자 명단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

간표가 온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한 번 만났던 사람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c.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왜 생을 걸어야 하며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빌2:13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 진짜 사명자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줬을 때 발견되는 사람이 제자다. 제자를 발견했으면 확립을 시켜야 한다. 준비된 일꾼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영접할 사람과 사명자를 찾아낼 수 있다.

② 준비된 일꾼이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다. 세 가지 미션이 뭐가?

1)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이다. 오늘이 주일인데 주말인가 주초인가? 월화수목금토일인가, 일일화수목금토일인가? 당연히 후자다. 한 주간을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1주일 동안 방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약케를 따라가라고 한 것이다. 그 말씀, 미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 평생에 주신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한 주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은 사람이다. 말씀의 미션이 있는 사람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 묵상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다르다.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다. 나는 미션 홈에서 숙제검사를 한다. 묵상한 것을 가지고 일기를 쓰라고 했다. 그것을 써 가지고 3줄이든 4줄이든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응답받은 것을 전부 기록해서 해 보자고 했다. 미션 홈에서는 제자를 세워야 하니까. 그냥 말씀 미션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해 보시기 바란다. 그러면 말씀 성취되는 응답이 날마다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내게 성취되었을 때의 말씀은 다르다. 머리로 아는 것과 체험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일꾼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자동문을 여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나도 헤매고 있는데 가면, 하나님은 진짜 제자의 문은 안 여시는 것이다. 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2) 그리고 나면 기도미션을 주어야 한다. 너무 간단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기도 미션이다. 그렇지 않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계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자녀문제, 경제문제가 전부 다 기도 미션이다. 기도 미션을 두고 적어두고 응답받아 보라. 나는 전도사 때부터 얼마나 이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기도 미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소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란다.

3) 그리고 무슨 미션이 있어야 하나? 전도 미션이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명단, 가족, 친척, 친구까지 다 적어놓고 기도해 보라. 알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적어 놓고, 우상, 제사 몇 번 드리는지, 그에게 일어나는 사고와 질병이 뭔지 적어놓고 나면 진단이 된다. 그러면 답 주는 것은 너무 쉽다. 그러면 흑암이 꺾인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오픈되는 시간에, 초청을 하든지, 불러 내든지 해서 맞춤형으로 시간을 잡으면 된다. 우리가 시화공단에서 공단지교회 캠프를 하는데,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난다. 명단을 놓고 지교회 팀들이 한 사람씩 스케줄을 이야기한다. 캠프 디데이 시간에 그 시간표를 두고 이야기하고 정하다가 주중에 들어간다. 사역자를 중심으로 그 시간에 그 사람과 팀을 이뤄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운동을 한다. 맞춤형으로 하고 있다. 그 명단을 주일 밤에, 평

일 밤에 계속 모여서 기도한다. 기도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이다. 기도만 하고 있어도 성경적인 전도캠프의 문이 열린다. 이 시간표를 내가 알고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제자가 보인다. 루디아, 아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가 보인다. 그냥 전도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 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면 계속 강한 자만 만난다. ‘전도는 힘들구나.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불신앙한 대로 응답이 그렇게 온다. 우리가 행16장의 응답을 보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팀이 나와야 한다. 메시지가 준비되고,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이었으며, 기도가 되는 팀이었다.

③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다. 행16:13,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리고 스케줄을 잡는다. 행16: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달라진 팀이다. 바나비는 기도를 안 했다. 그러다가 팀 구성할 때 엄청 싸운다. 기도가 안 되고 있는 마카요한을 데리고 가지는 것이다. 영적 사실을 모르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 바울이 화를 내면서 끊는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팀 구성이 절대적이다. 이 팀들이 행17장에 갈 때는 관례를 가지고 갔다.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리고, 정확한 해답을 준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영접메시지와 사명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울이 미션을 쫓지 않나? 디모데에게. (딤후2:1-7) 그제 성경적인 전도다. 우리는 이 축복을 많이 놓치고 있다. 우리는 메시지 훈련 다 받았지만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다. 행16:25, 문체 사건을 만났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인다. 사건 캠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기만 하면 축복이 나타나겠구나 하고 보이게 된다.

5. 마무리

성경적인 전도캠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행14:19-28에, 제자를 굳게 하는 것이다.

(2) 오늘 우리가 읽었던 행16:19-40에는, 제자를 찾았는데, 지속할 장소가 또 나오게 된다.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한다. 마무리는 시스템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시스템이 있다. 영접과 제자 메시지와 미션이 통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시스템을 만들면, 그 지역에 계속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 주신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에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시고 전도 문을 여신다. 성경적인 전도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행 19:8-21에, 바울이 이것을 보고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환상을 가지고 로마를 보겠다고 한다. 원대한 꿈을 가지겠다고 로마를 보겠다고 한다. 바울은 돌에 맞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시스템이 보이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 하나만 나와도 강남,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행19:8-21이다. 지역 전체의 흑암이 무너지는 한 팀이다. 그제 성경적인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안 나온다. 이런 제자가 안 나온다. 그냥 숫자만 많아지면 부흥되었다고 좋아한다. 얼마나 큰일인가? 그러나 이게 보여지면 모든 성도가 제자로 보인다. 이분들을 제자로 세우면, 성도가 있는 지역과 직장이 어느 날 교회화되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시스템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영향이 계속 가게 될 것이다.

(3)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문제, 사건, 일, 사람이 전부 문으로 보인다.

① 모든 성도가 시스템인 이유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② 둘째로, 분명히 가정, 가문이 있고 후대가 있기 때문이다.

③ 셋째로, 당연히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으며 사업 현장이 있기 때문이다.

뭐가 보이는가? 행18장이 보이는 것이다. “업이 같으므로.” 지역이 보인다. 행19장이다. 우리는 시스템을 밖에서만 많이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100군데 지역, 100군데 일터, 100군데 학교, 직장, 모든 것이 보인다. 눈만 열리면 된다. 와 있는 응답부터 잘 보라. 그 팀이 한 지역을 두고 집중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성경적 전도캠프의 이해다. 진단부터 제대로 하면서 답을 가지고, 시간표를 보아야 한다. 복음을 전해 보면 영적 반응이 보인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온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보고, 반응을 보라. 쫓겨나더라도 물어보고 나와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제목을 가지고 원니스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니스 되었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다. 참사랑교회가 이 기도로 원니스되어야 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이 소원을 두고 목마른 자가 안 나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리고 목마르게 기도했다. 그 땅에 사는 롯은 한 번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 본 적이 없다. 단을 짊고 기도한 적이 없다. 결국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 열매가 없어도 계속 문을 여시고 계시며, 어느 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영세 전에 예비하신 그 제자를 붙이시게 된다. 열매가 일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안 되는 것이 시간표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다. 나는 열매 없어도 기도하는데, 10년 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20년 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다. 지금 하나씩 문이 열린다. 우리교회에는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다.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 제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쓰실 것이다. 참사랑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란다. 전도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역과 후대,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붙이시는 축복 있기를 바란다.